

# 비과세 종합통장 누구나 가입...2000만원 한도 5년 혜택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

### 주택자금 증여세 한시 면제

###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검토

### 법인세 이어 '부자 감세' 논란

문이다. 그러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

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년층은 자산이 많은데 청년층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년층 자산을 흘러보내 청년층의 결혼·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분석, 귀금속, 가방, 모피 등 사치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풀죽은 소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다. 개소세 기준이 2000년 개정 이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개소세 기준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의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에서 과세 기준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는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00~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일몰이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제도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보이는 고소득층으로의 ISA 가입 대상 확대,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자금 비과세,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등은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가열된 여야간 세무 논쟁은 세계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미국 FOMC회의 주목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코스피 2050~2090 예상

지난 주 주식시장은 환율 영향 및 기업실적 악화로 소폭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정유 및 화학, 금융대부 기업들의 실적 저하와 이어지는 전년대비 15% 하락한 실적을 기록했다.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실적에 따라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상이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를 포함한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정유화학업종들은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 또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평균 1150원 선을 상회했고, 23일 원·달러 환율은 1165원에 마감해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6일간 1조원의 환차손 우려에 따른 매도가 증가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상승세를 보였던 제약주 역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부진했던 소비가 일부 살아나면서 여행주 등이 소폭반등했으나 장중 주춤세로 돌아섰고, 단지 바이오 관련종목들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지속됐다. 특히 24일 현대건설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석회계 의혹에 따라 현대건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공정적인 점은 그리스 금융개혁안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코스피는 2050~2090포인트로 예상된다. 여행출국자수가 전년수준으로 복귀해 소비확대가 예상되고, 중국 메르스 서프라이즈 시장 상승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정적 요인으로는 정부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따른 소비자와 은행들의 대출태도의 변화 가능성과 산업계의 2분기 추가 실적 하락여부다.

미국 경제 등 국제경기 여건도 관건이다. 28~29일(현지시간)예정된 미국 FOMC회의의 전까지 금리인상과 관련된 불안감이 여전해, 국내 원화약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발표될 미국 GDP 성장률은 2.5%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산업 생산이 하락세를 기록하며 제조업경기는 둔화하고 있으나 개인소비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경기 개선세는 지속할 것으로 판단돼 긍정적 요인으로 봐도 무난할 것이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 광주·전남 기초연금 수급 40만명 돌파

### 수급액 800억원 육박...65세 이상 10명중 8명 혜택

광주·전남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액도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북구, 전남은 여수가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꼴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신)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지급된 기초연금은 785억60만원으로, 모두 42만9408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광주는 10만9651명에게 200억2787만원, 전남은 31만9757명에게 584억7273만원이 지급됐다. 광주 5개 구(군) 가운데서는 북구가 3만4245명으로 기초 연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전남에서는 여수가 3만 5117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54만9725명 가운데 78.1%인 42만 940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고, 특히 완도군의 수급자는 1만3905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만5296명)의 90.9%를 차지했다.

기초연금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441만명에게 매월 8100억원, 1인당 최대 20만2600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종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신청 안내와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찾아뵙는 접수서비스 등을 펴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주로 식비(40.2%)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가 뒤를 이었다. 기초 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92.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91.9%는 '잘 도입됐다'고 답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불확실성 커진 주식시장 빛내 투자한 금액 8조 넘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빛을 내 투자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금액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8조286억원이었다. 신용잔고는 투자자가 향후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의미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신용 잔고는 3조 8880억원,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는 4조1406억원이다.

연초 5조원대이던 신용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에서 2394억

원(6.56%), 코스닥시장에서 2666억원(6.88%)이 증가했다. 특히 수출주중 증시으로 한 대형주가 부진을 겪는 가운데 중·소형주의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는 올해 초 유가증권시장을 앞지르며 이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데다 오는 28~29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앞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시 수급 상황이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점이다.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 거래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합뉴스

## 금값 떨어지자...'금 테크' 열기



투자자들이 최근 국제 금값이 떨어지자 향후 반등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다시 '금 테크'에 나서면서 순금제품과 골드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최근 한달 순금·골드바 판매 작년 동기 2.4배 급증

최근 금값이 크게 떨어지자 향후 반등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다시 '금 테크'에 나선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26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최근 한 달(6월 24일~7월 23일) 순금제품·골드바 판매량은 작년 같은기간의 2.4배(138% ↑)로 급증했다.

이른바 '금 테크(금을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베스트셀러(인기 판매 상품) 품목과 검색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일 기준 G마켓 주얼리(귀금속 및 장신구)·시계 부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피주얼리 순금 골드바(3.75g 17만6000원)', '일반형 돌반지(3.75g 18만7000원)' 등 순금 제품들은 상위권에 올라왔다. 평소 주로 시계·선글라스·귀걸이 등이 상위권을 점령하는 것과 비교해 이

례적이다. 주얼리·시계 부문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도 골드바는 18위를 차지했다.

순금 제품뿐 아니라 14·18k 반지, 팔찌, 귀고리 등 금 소재 액세서리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기간 14·18k 금팔찌 판매량은 작년의 4배(307% ↑)를 웃돌았고, 금 목걸이도 2배 이상(162% ↑)으로 불었다. 금 팔찌, 금귀걸이, 금장미·카네이션, 금 소재 미아방지용품의 증가율은 각각 84%, 44%, 100%, 17%에 이르렀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투자할 때는 환율 상승을 염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RX금시계 관계자는 "시중 금 시세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달러 강세가 국내 금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과속주 빛깔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전남 담양군 삼리리 담양 예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식품가공공장 (단층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5636.5㎡ 건물 873㎡ **감정가 9억 8백 최저가 6억 3천 6백**

전남장성군 북이면 식품공장 백양사 IC인접 교통입지우수 2012년 신축건물 투자적합 NPL가능, 공장 창고 임대가능 대지 9341㎡ 건물 2031㎡ **감정가 41억 4천 7백 최저가 11억 9천**

KT&G 본건 OB공정 **안산동 로케트전기부지 공장용지 81453㎡ (24682평) 일반공업지역** **감정가 27억4천 최저가 152억**  
**고수의 창출 가능!**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